

# 세계기상의 날 기념, 「2025년 기상기후사진전」 개최

- 순간을 담은 하늘, 제42회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 수상작 30점 전시

부산지방기상청(청장 이은정)은 세계기상의 날(3.23.)을 맞이하여, 지역민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기상·기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자 3월 19일(수)부터 25일(화)까지 부산시청 도시철도 연결통로에서 ‘2025년 기상기후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기상청에서 주최한 ‘제42회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 수상작 30점을 전시한다.

주요 작품은 지리산 정상 위로 여러 개의 물기둥처럼 소나기가 내리는 장면을 담은 ‘물기둥(대상, 김정국)’, 전주 한옥마을 위로 무지개가 뜬 장면을 담아낸 ‘한옥마을 위 무지개(금상, 유광현)’ 등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상·기후 현상(바람, 구름, 안개, 얼음 등),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뭄, 홍수 등) 등의 신비로운 사진을 일주일간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이은정 부산지방기상청장은 “이번 사진전의 주요 작품들은 기상과 기후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이라며, “자연이 선사하는 경이로운 순간과 날씨의 변화를 담은 작품들을 감상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과 공감대를 넓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사진전을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5년 기상기후사진전 홍보 포스터 1부.

담당 부서	부산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김병준 (051-718-0420)
		담당자	사무관	조희영 (051-718-0422)

| 2025 세계기상의 날 기념 |



# 기상 기후 사진전



전시일정

2025. 3. 19. (수) ~ 3. 25. (화)

전시장소

부산시청-도시철도 연결통로